

◎ 허봉, 『조천기』 pp.402-끝 (1574.7.24~11.3)

● 조천기 (중) 계속

7월 25일

- 엄송, 「남궁주의」 가운데 설문청, “종사복의” 읽음. 문묘종사와 관련 조신들의 여러 의론을 실은 글. “육구연은 천품이 고명하고, 도를 보는 것이 매우 뛰어났으므로 그의 학술과 이론은 마땅히 설 선의 오른쪽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413) 이에 황제는 설선, 사마광, 육구연의 문묘배향을 불허하였으나, 설문청은 최근에 결국 종사됨.
- 육구연의 종사에 대해 엄송은 다른 글에서 비판. “이단의 학문을 하는 무리들이 이(성묘)를 더럽히니”. 허봉은 이에 공분함.

7월 29일

- 중국의 세금에 대해 물음. 세역이 무거워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 관직에 있는 자는 그 친인척까지 부역 면제받는 부패상. “중화와 이적에는 비록 안과 밖이 있다 하더라도....천성(天性)에는 온세상이 한결같았으니”(419) 운운.

8월 2일

- 국자감생 섭본자립과 대담. 왕양명을 높이 평가하는 섭본자립에 반대하는 입장 집요하게 개진. “왕양명이 문묘에 종사되고 그 후손이 작위를 이어받았다는데 이 일은 어느 해에 결정되었으며 어떤 사람의 건의에서 나온 것인지”(424) “만약 내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비록 그 말이 공자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감히 믿지를 않겠다.”(왕양명이 했다는 말:425) “고금의 성현들의 글을 일체 방치하고서.....양지만을 상상하여 이로 하여금 홀연히 순간에서 깨달음이 있게 할 뿐이니, 이것은 석씨가 일을 멀리하고 물(物)을 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으며”(426-427)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조하나, 섭본자립은 오지 않음.

8월 3일

- 섭서의 거인(舉人) 왕지부와 대담. 다시 양명학에 대한 중국 내 분위기 타진. 왕지부는 허봉과 같이 양명학 배척하는 입장. “요즘에 육자정과 왕양명의 학문을 하는 이가 있어서 정·주가 주장한 것과는 다른데도 후생들이 이학(理學)의 종주로서 추대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니”(430) “양명의 양지설은 옳습니까? 그릅니까?”(430)
- 조선 ‘심학자’들을 묻는 왕지부의 물음에 허봉이 정몽주,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서경덕, 이황, 성혼, 이항, 노수신 등을 꼽음.

8월 4일

- 옥하관에 도착. (동관)

8월 6일

- 백원개(통사)가 <전장통보(全章通報)> 2권 가지고 옴. 날마다의 탄핵 논박, 인물의 전주(銓注), 사직, 사은, 주청 등 실려있음. 그 중 18건을 뽑아 상세히 기록해 오도록 시킴.

8월 7일

- “지난해에 왕과 대신이 칼을 차고 들어왔던 까닭에”(실패로 돌아간 역모인 듯) 황제가 조회를 보는 3·6·9일에는 외국사람 및 번성(藩省)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조회를 보는 날에 외신(外臣)을 보지 않는 법이 설치된 데에 대해 허복은 이 사건의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내관의 농간이 의심된다고 비판.
- 조선 사신이 도착한지 이미 4일째이므로 특별히 면회를 허락.
- 통주에서 오던 길에 수레가 달자에게 점탈되어 도착이 늦어짐.

8월 8일 - 홍로시에 가서 보고단자를 바침. 5일마다 한번씩 하정을 받음.

8월 9일

- 조회와 당상. “조선국에서 온 형조참판 등 31원(員)이 뵙니다.” 하마연(下馬宴)과 상사(賞賜)하는 날짜를 가지고 중간관리들이 뇌물 요구.
- 명나라 관리 정여벽이 조선의 표문에 대해 감탄. “당신네 나라의 표문을 보았더니 조정을 공경히 받드는 뜻을 볼 수 있었는데, 당신네 나라는 반드시 기자의 유교를 심복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였을 것이니”(445)
- 이 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계속 ‘실록의 일’을 물어봄.

※ 종계변무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86598>)

조선시대인 1394년(태조 3)부터 선조 때까지 200여 년 간 명(明)나라에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잘못 기록된 세계(世系)를 시정해달라고 주청(奏請)했던 사건.

고려시대인 1390년(공양왕 2) 이성계의 정적이었던 윤이(尹彝)·이초(李初)가 명나라로 도망가서 이성계를 제거할 목적으로 공양왕이 고려왕실의 후계가 아니라 이성계의 인척으로서 그와 공모하여 명나라를 치려 한다고 모함하고 이성계는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이라 했다. 명나라에서는 이 내용을 <태조실록>·<대명회전 大明會典>에 기록했다. 조선은 1394년 명나라 사신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종계(宗系)문제는 조선왕조의 합법성과 왕권확립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명나라 사신 황영기(黃永奇)의 귀국편에 변명주문(辨明奏文)을 지어 보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반응이 없자, 1402년(태종 2) 사은사 임빈(林彬)을 파견하여 주청문(奏請文)을 보냈으나, 명나라에서는 <만력회전 萬曆會典> 중수본에 변명사실을 부기하는 데 그쳤다. 이후 이것은 200여 년에 걸친 양국간의 외교문제가 되었고, 중종반정의 합법성 강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1518년(중종 13) 주청사 이계맹(李繼孟)이 돌아와 <대명회전> <조선국조 朝鮮國條>의 주에 "이인임과 그의 아들 단(丹 : 이성계)이 홍무 6년에서 28년까지 4명의 왕을 시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자 중종은 남곤(南袞)·이자(李)를 보내 개정을 요구했다. 그후 <대명회전> 중찬이 있으리라는 소식을 듣고 1529년 유보(柳溥), 1539년 권별(權), 1557년(명종 12) 조사수(趙士秀), 1563년 김주(金澍), 1573년(선조 6) 이후백(李後白)·윤근수(尹根壽), 1575년 홍성민(洪聖民) 등을 보내 거듭 개정을 주장했다. 1584년 황정욱(黃廷彧)이 중찬된 <대명회전>의 수정된 등본을 가지고 돌아와서 종계변무의 목적이 일단락되었다. 1587년 유홍(兪泓)이 중수된 <대명회전> 중 조선관계 부분 1질을 받아와 선조가 종묘사직에 친고(親告)했으며, 1589년 윤근수가 <대명회전> 전부를 받아들임으로써 종계변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8월 12일

- 주객사(主客司)의 원외랑(주객사는 예부의 세 번째 시이며 낭중 밑에는 원외랑이 있고, 그 밑에는 주사가 있는데 외번 접대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전공신에게 실록의 일을 물어봄. 목종실록은 이미 끝났으나, 세종실록은 진행 중. <회전(會典)>은 증보 중. 1529년에 주청한 일(중종 24년, 1529년 6월에 유박이 성절사로 가면서 이인임의 족계(族系)를 등서하여 갔으며, 9월에는 성절사 유박과 진하사 이함이 그 허락을 받고 돌아왔다)은 이미 실했으나 다른 해의 일은 아직. 조선 사신이 정문(公門)을 내도 무방하다는 대답.

8월 13일

- 조천궁에서 의식 연습. 백담사, 묘옹선림문 등 중국의 도교 성행 비판.  
- 상통사 홍순언은 <실록>과 <회전>(대대로 정전(正典)의 사례를 기록해 놓은 책, 明會典) 관련 사실 파악을 위해 허찬선의 가인 유심과 만날 약조.

8월 16일 - 하마연.

8월 17일

- 황제의 생일. 대궐에 나가 하례. 서번(신강), 달자, 라마(서장) 등 번국도 함께 함. “대일통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고 평함.  
- 원외랑 전공신에게 종계변무 정문을 보여주며 조속한 처리 부탁.

8월 18일

- 대궐에 사은, 예부에 종계변무 정문을 냄. “삼가 변무에 관하여 정문합니다. 먼저 만력 원년 2월에 본국에서 종실의 계보와 고려의 왕을 시역하였다는 것 등의 두 조항이 사실과 다른 정상을 갖추어서 상주하였습니다.....받든 성지를 ‘세종황제실록’에 자세히 갖추어 실음으로써 길이 세상에 보일 것이다.’.....성지를 받들건대, ‘그리하라. 그 나라의 전후 주사(奏事)를 사관으로 하여금 「황조실록」 안에 갖추어 써서 편찬해 넣고 「회전」은 성지를 기다렸다가 이어 수찬할 때에 더해 넣고’.....본국에서는 이미 배신 이양원(1563년 종계 변무사의 서장관으로 갔다가 그 임무를 마치고 그 공으로 광국공신이 됨)을 보내어 은혜를 사례할뿐더러, 그 성칙에 新회전에 자세히 기재한다는 한 구절을 한 나라의 신민이 간절히 기다린지가 13개월.....마침 「회전」을 증수한다 하오니.....「회전」의 본국 조문 아래에, ‘국조(國祖)는 이인임과 본래 같은 이씨가 아니고.....국조가 변방의 신화가 된 데에 이르러서는 한 나라의 추대로 인한 것이지 터럭끝만큼이라도 의심스러움이 없었다’는 등의 실상을 갖추어 실어주시되.....”(455-477)  
- 상서(尙書)는 정문을 자세히 보고, 이미 아뢴 일이므로 기다릴 뿐 다시 아뢴 수 없다고 함. 상통사 홍순언은 거듭 주청.  
- 저녁 때 온 유심의 편지. “이 기회는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459)

8월 19일

- 원외랑 전공신과 홍순언·안정란 사이의 교섭 계속.

8월 20일

- 국자감 참배. 육구연의 위패 확인. 육구연의 ‘위학(僞學)’이 사당에 종사된 것은 1530년 임을 엄승의 남궁주의 통해 상고하였으나 그 발안자를 밝히지 못함.  
- 국자감생 양수중을 만나 왕양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지만을 말했으니 거짓학문이라 대답.  
- 석고(石鼓)를 보고 “끝없는 감회를 이길 수 없었다.”(466) 태학의 퇴폐함과 타락함을

슬퍼함.(470)

8월 21일

- 개시(開市). 개시는 변경에서 외국인 또는 북방민과 하는 무역을 말하며, 사행자는 북경에서 특정한 날짜에 무역하는 것이 공인되었음. 3일간 개시 허락. “우리 일행의 사람은 팔고 사는 데에 눈이 어두워 미치광이와도 같고.....”(472)

8월 25일

- 천단과 원구 구경. 등계달(한세능과 같이 조선 사행에 동행했던 인물. 친조인사)과 대담하려 하였으나, 제독이 보낸 관리의 미행을 의식, 남의 이목 경계.

- 등계달이 실록 관련 내부사정을 알려주며, 조선에 이롭도록 힘쓰겠다고 약조. “우리 고향의 친구들이 많이 내국에 들어 있으므로 쉽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475)

8월 26일 - 상마연

8월 27일

- 서함 저 「황명명신록」에서 국자감이 개정한 성묘의 명호 및 종사하는 차례 조사.

8월 28일 - 잔치. 유구국의 통사 장주부와 만나 유구국에 대해 물음. 2년 1공.

8월 29일

- 요동순무사 장학안이 조선의 포로환송에 대해 상 주기를 청하여 상을 받음.

8월 30일 - 돌아가는 사행 짐검사가 간략한 것은 우리 나라만의 특혜.

## ● 조천기 (하)

9월 3일

- 대궐에 나가 상 받음.

- 한세능(선조 15년, 1581년 조선에 사행하며, 세종과 목종 실록을 편찬한 인물)의 전갈.

9월 4일

- 요동순무어사에게 보낸 예부의 복본. “예부는 회답합니다. 한 본은 속국(조선)이 천은에 감격하여 포로가 된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 준 데 관한 일입니다.” 송환된 포로 총 105명은 모두 요동 금주위 등의 사람으로서 조선국 지방으로 도망왔는데, 조선에서 전후 아홉 차례나 의복과 양식과 탈것을 주고 요동도사에 관송하여 넘겨줌. 요동 무진관 장학안의 제청. “조선국왕은 대대로 번봉을 지키고 신례(臣禮)를 지켜서....충순이 절실하니”(488)

9월 6일

- 옥하관을 떠나 하행길에 오름. 등계달이 사람을 보내 친교를 약속함.

- 한세능의 가인 유심이 와서 세종실록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종계에 관한 전문을 꺼내 보임. (495-496)

9월 7일

- 유심과 대담. 황제가 어떤 책을 읽는지 물음. 종계변무에 대한 논의 계속. “유심은 주공과 친분이 있어서 매양 우리나라 종계 등의 일을 주공에게 말하였는데”

9월 9일

- 북변에 전쟁의 기미가 있다는 첩보. 달자 40만 기가 침공. “달자가 피를 합하여 틈을 엿보는 것은 반드시 하루 뿐 아니리니 그 형세는 지극히 근심스러웠다.”(503)

9월 14일

- 통사 백원개가 성에 들어가 병비아문에 달자의 소식 탐문.

9월 18일

- 조약과 대담. “오늘날은 위로 어린 군주가 계시어 기강과 윤리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 많습니니다.”라는 평.(512) 10일 전에 달자 5천-6천기가 금주위 지방에 들어와서 노략질.

9월 20일

- 전황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계속 감. 동관역 진극순, 1562년 달적 1만여기가 들어와서 이역을 부수고 주민을 침탈, 죽이거나 잡아갔음을 회고.

9월 23일

- 도어사 엄근의 패문. 십분지간(대단히 긴급한 일). 토만(土蠻)인 속과해 등 5-6개의 큰 두목이 군사를 모아서 광녕의 동서지방을 침탈한다는 정황.

9월 26일

- 요동 총병관, 안찰첨사, 요동도사에게 인사. 야불수를 보내어 요양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함. 달적의 두목이 별안간 병사하여 군대가 흩어졌다는 풍문.

10월 3일

- 청하보의 수보관 왕유병, 8월에 건주위의 달자가 변새를 침범하여 무찔렀다는 이야기.

10월 5일

- 조선 사행의 병폐 비판. 사행이 번다하고, 수레 등 비용 소모가 심함. 산해관 밖(關外)은 모두 전쟁하는 땅. 피폐한 민정에 부담이 되어 원성이 자자.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반드시 국가가 무역을 폐지하고 사신이 노비(路費)를 생략한다면”(532)

10월 9일

- 동지사 일행과 조우. 이들은 7일에 강을 건넜음.

### ● 조천기 후서

“우리나라가 황조를 섬기는 것은 예의가 내복(內服)과 같아서”

“원방사람(遠人)을 회유하는 소이”

“중화와 외이(外夷)와 안과 밖의 구분은 참으로 딱 끊어진 것.....구습을 말끔히 씻어버리어 기질을 변화시켜 날로 새롭게 하여 예의의 나라로 자진(自進)하여 간다면, 성스러운 황제와 밝은 왕은 한결같이 일시동인(一視同仁)하고 나의 적자(赤子)같이 여겨 시기하고 혐오한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황조가 우리 나라를 대하는 것이 이와는 달라서.....조정의 금령.....사신으로 나가면 귀머거리나 소경과 같아서.....부끄러움이요 한스러운 일.”